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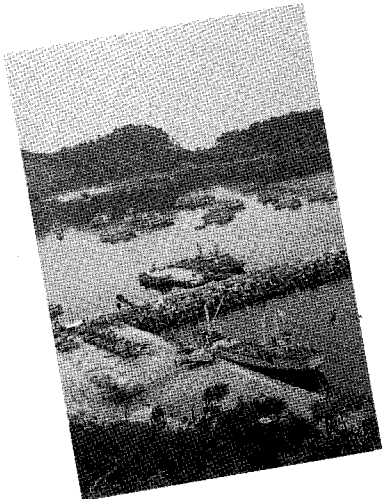
어촌지역 개발 새로운 방향

최근 UR협정의 타결로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영세하고 마구잡이식의 원시적인 어업은 스스로 도태될 수 밖에 없고, 경쟁력이 있는 것만이 생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즉 자원절약적이고 비환경파괴적인 수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吳 兆 煥

(中央大 地域開發學科 教授)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수산업을 무공해산업으로 간주하여 수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안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성립조건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에 주축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수산업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기능은 물론 공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산업은 국민에게 고급의 단백질 식품 공급원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외에도 어촌사회 형성 해양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사회적,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지난 40여년간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의 발전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세계 7위이고 수출은 세계 3위의 수산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연근해어업은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과 임해공단에 의한 해수오염으로 인한 수산자원 재생력 상실,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간척과 매립에 의한 연안어장 상실 등에 의한 어장 기능이 쇠퇴하였으며 어촌지역의 저개발과 저소득에 따른 생계불안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한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수산업은 물론 어촌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고단백 식품 공급원을 회복하고 해양문화와 연안환경이 조화된 어업 및 어

촌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종합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새로운 욕구에 부응 휴식공간으로 제공

우리나라의 연근해에 해당하는 경제수역은 국토면적의 3배에 달하는 새로운 국토이자 환경자원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와 보전 및 효율적인 개발이용은 어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전제이다. 국토로서의 해양자원은 농지와 같이 재생력을 갖고 순환하는 생태계의 일부이다. 이러한 순환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영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자원은 현재는 물론 우리의 후세대까지도 혜택을 주어야 하는 공익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영양과 건강에 대한 국민관심의 고조는 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은 연근해의 수산자원의 고갈과 세계적 추세인 200헤리 경제수역 설정과 입어료의 인상, 어획량 쿼터제 제한에 따른 원양어업조건 악화 등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많아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연근해 어장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근해를 안정적 인 수산물의 공급원으로 조성하는 노력은 국가적으로 새롭게 전개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산업의 발전은 수산업의 전진기지인 어항과 어촌이 균형있게 개발되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하는 정주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될 때에만 가능하다. 즉 어항과 어촌은 수산자원 관리의 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하고 어촌주민들은 자원의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촌은 어촌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근대적인 지역사회로서의 정주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관광과 휴양욕구를 가지게 한다. 우리의 해안은 이러한 새로운 국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해양휴식공간과 자연생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연근해 연안의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보전과 관리는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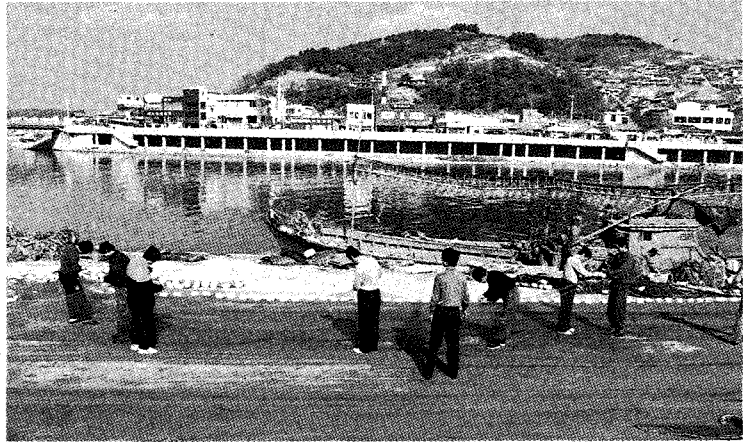
양문화창달과 새로운 관광자원화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항·어촌·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장·가공시설을 병행 어항개발 현대화해야

어촌종합개발은 어촌을 단순한 수산물공급기지만이 아닌 인간정주의 지역사회로 개발하고 해양자원을 생태환경의 질서내에서 보전하면서 개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주공간은 어항과 더불어 1일생활이 가능한 범위를 기본단위로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범위로서, 개발방식은 주민의 개발욕구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문화·환경·관광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되 주민참여에 의하여 장기발전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안지역은 해안단구, 기암괴석 등의 자연경관과 사질이 좋은 해수욕장으로 개발 가능지가 많다. 특히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관광자원이 많아 국립공원의 경우 해안면적을 포함하면 65%나 되어 해안지역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관광은 주로 내륙지역 관광위주로서 해양관광은 여름철에만 해수욕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일본의 경우 어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여 도시인들에게 휴식공간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어촌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어촌을 고기잡는 어민들만의 공간으로 보는 소극적 시각에서 벗어나 어촌을 관광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도시민들에게는 새로운 휴식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곳으로 재인식하여 적극

적인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근해 해역을 해양목장으로 개발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해양목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장의 생산증대를 통한 복지어촌건설에 있으며 나아가서는 해양환경보전과 생태계 유지에도 그 목표가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양식어업도 중요시 하지만 그보다는 연근해 어족자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여 증식보다는 재배어업을 제도화하여 연근해 어장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지역에서 연안어장의 목장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안어장을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어업질서유지대책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연안어장에서 성

장한 어류는 다른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어족에 알맞은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어항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전한 어선의 선착장화하고 아울러 수산물의 저장·가공시설을 병행건설하여 어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항은 어업의 전진기지로서 어획물의 양육장, 출어준비장소등의 생산활동기지이자 어촌주민의 생활기반으로서 수산업 전문분야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근거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87개의 어항이 있으나 법적인 지정종류에 따라 그 관리주체가 수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역의 일선수협이 관리대행하고 있어 관리업무가 주체별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주민이 관리주체가 되어 어항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극적 단일목표에서 종합인식으로 재정립

연근해의 수산자원이 지난

생태계로서 순환의 질서속에서
재생력이 유지되는 연안해역과 인간정주의
지역사회개발, 어촌주민의 안정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종합개발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일 목표의
소극적 인식을 다목적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으로
재정립하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어촌은
결국은 떠나야 할 장소나 마지못해서 사는
장소가 아니라 미래가 보장된 장소,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장소로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인간정주의 지역사회로 건설되는 것만이
어촌개발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40년동안 자원약탈적 개발이
용의 대상이 되어 어족자원의
고갈, 어촌주민의 저소득, 어
촌의 상대적 저개발이라는 악
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전망할 때
더욱 수요가 증대될 고단백수
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
고 공급하는 기지와 다른 한
편으로 해양관광자원으로 개
발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
하고 생태계의 재생력을 복원
시키기 위해서는 어촌주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어촌지역이
쾌적한 인간정주의 지역사회
로 새롭게 종합적으로 개발되
지 않으면 안된다.

생태계로서 순환의 질서속
에서 재생력이 유지되는 연안

해역과 인간정주의 지역사회
개발, 어촌주민의 안정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종합개발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
으로 추진이 가능하여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
지의 단일 목표의 소극적 인
식을 다목적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으로 재정립하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어촌은 결국은 떠나
야 할 장소나 마지못해서 사
는 장소가 아니라 미래가 보
장된 장소,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장소로 그 기능이 발
휘될 수 있는 인간정주의 지
역사회로 건설되는 것만이 어
촌개발의 지름길이 될 것이
다. ㉔